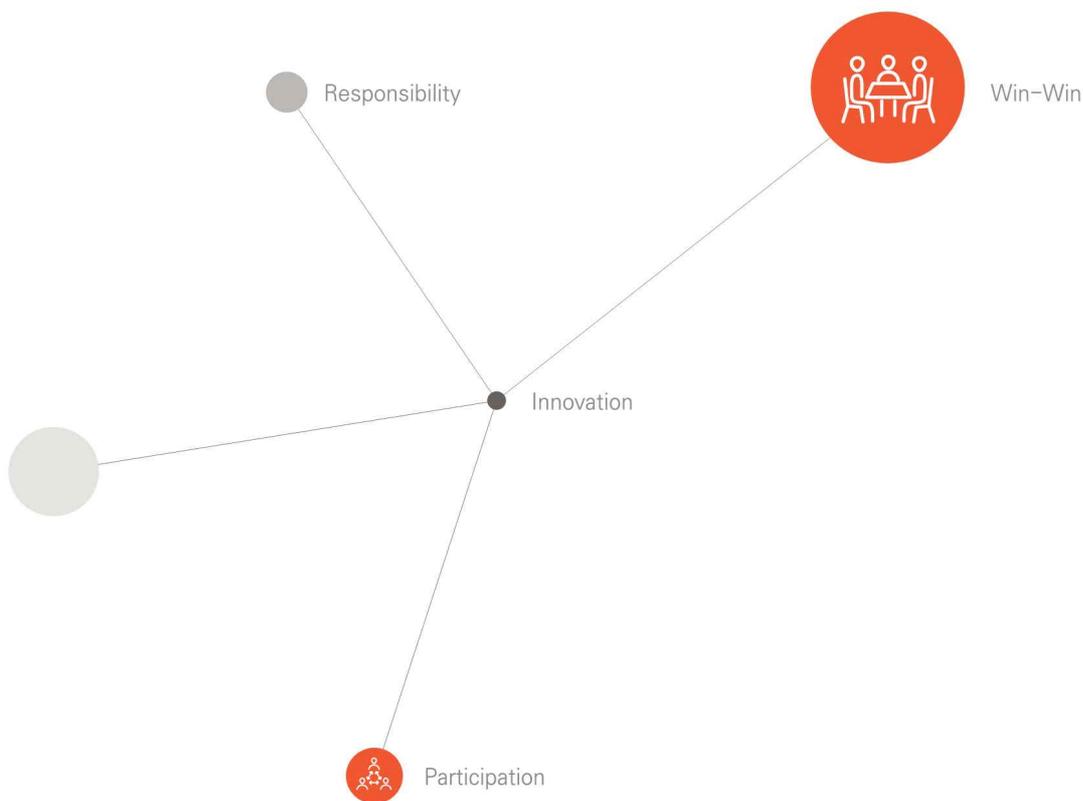


#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8월



# 목 차

---

1. 스페셜 이슈 .....	3
2. 해외시장 동향 .....	14
3. 국내시장 동향 .....	21



# 1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 스페셜 이슈



# 1. IACC: 2022 국제회의 바로미터 보고서

## 가. IAC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Centers)

- IACC는 국제회의, 미팅,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주로 하는 중소규모 컨벤션 베뉴를 대표하는 국제협회로 1981년 창설되었으며, 국제단체 중 유일하게 중소규모 컨벤션 베뉴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미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 전세계 24개국에 400여 곳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 IACC는 중소규모 컨벤션 업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의 시설·식음료·서비스·지속가능성 등의 지표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베뉴에 수여하는 ‘IACC 인증’, 신규 컨벤션베뉴 구축 지원, 다중 영상회의(MultiPOD) 기술지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운영, 트렌드·실태 관련 연구지원 등이 대표적임

### 1) 2022 국제회의 바로미터<sup>1)</sup>

- IACC는 2016년부터 매년 1분기와 3분기에 국제회의 업계의 현황 및 트렌드를 소개하고 향후 업계 비전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제회의 바로미터 보고서(IACC Meeting Room of the Future Barometer)’를 발간해오고 있음
- 특히 해당 보고서는 국제회의 기획자, 국제회의 주최자, 민간업체 대표자, 운영사 및 공급사 등 국제회의 업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진행하며, 고정된 주제 및 구성요소로 보고서를 구성하기보다 전 세계의 협력사 또는 회원사들과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부 필수 내용을 제외하면 매년 시의성 있고 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보고서를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음

1) 본고는 ‘IACC Meeting Room of the Future Barometer’(IACC, 2022)를 참고 및 발췌하여 작성하였음



## 2) 주요결과 요약

- IACC의 2022 국제회의 바로미터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분석내용은 글로벌 업계 회복 추세, 국제회의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설문, 호스피탈리티 업계 고용 및 임금 분석 등으로, 이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 및 예측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1> ‘IACC Meeting Room of the Future Barometer’ 주요내용 요약

연번	분류	세부 내용	
1	업계 회복세	숙박 수요	STR 지표 기준 숙박 수요, 단체숙박 수요는 2019년 대비 96.9%, 80.7% 수준을 기록
		제안요청 활성화	제안요청(RFP) 활성화 지표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56% 수준을 기록
2	국제회의 기획자 설문	업계의 재활성화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는 응답은 55%, 새로운 이벤트를 발굴 중이라는 응답은 16%를 기록
		제안요청 규모 확대	2022년 5월 4주차 기준 제안요청 규모는 2019년 동기 대비 10% 상승한 수치를 기록
		대면 행사 증가	39.5%의 기획자들은 2022년 대면 행사 개최건수가 20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
		비용 증가	2022년에 소요되는 개최 비용이 2019년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총 79.3%
		호텔 및 베뉴 인식 변화	기획자들 중 호텔 및 베뉴들의 창의적인 공간활용을 원한다는 응답은 55.3%로 나타남
		참석자 경험	향후 대면 행사 시 코로나19 이전보다 교류 및 네트워킹에 집중할 것이라는 응답이 증세
3	업계 고용현황	인력 수급 부족	미국 내 호스피탈리티 업계 전체 일자리 중 현재 채용 중인 일자리의 비율은 8.9%로 조사됨
		임금 상승	호스피탈리티 및 레저 업계의 2019년 대비 2022년 임금 상승률은 약 14.7%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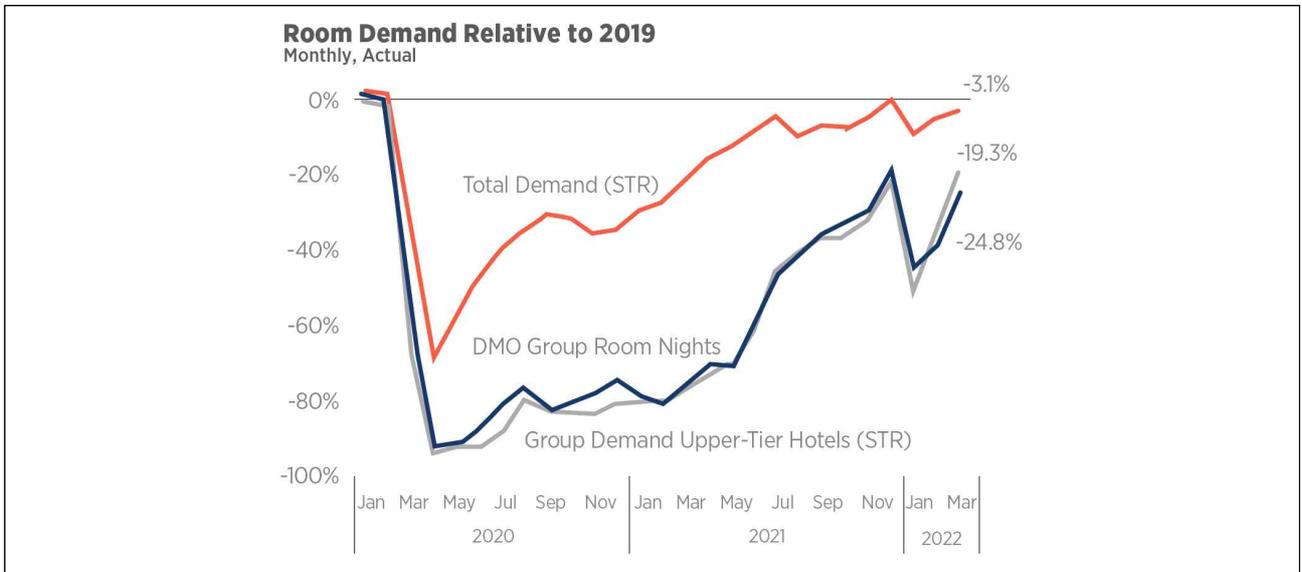
### 나. 주제별 분석 결과

#### 1) MICE업계의 회복세

##### ■ 호텔 숙박 수요 급증

- IACC는 전세계 호텔 산업 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STR(Smith Travel Research) 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22년 3월의 전체 숙박 수요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6.9% 수준에 이르며, 고급 호텔에 대한 단체숙박 수요 역시 2019년 대비 약 80.7% 수준을 기록하는 등 호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한편 전체 숙박 수요 수준은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0년 5월 조사에서부터 다시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그간 꾸준한 회복 추세에 있었던 반면 고급 호텔에 대한 단체 숙박 수요는 2020년 3월 급감하고 난 뒤 미세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2021년 5월~7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상승세를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는 전체 호텔 숙박 수요 및 고급 호텔에 대한 단체 숙박 수요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시기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숙박 수요가 주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직후인 3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열고 국가 간 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시 숙박 예약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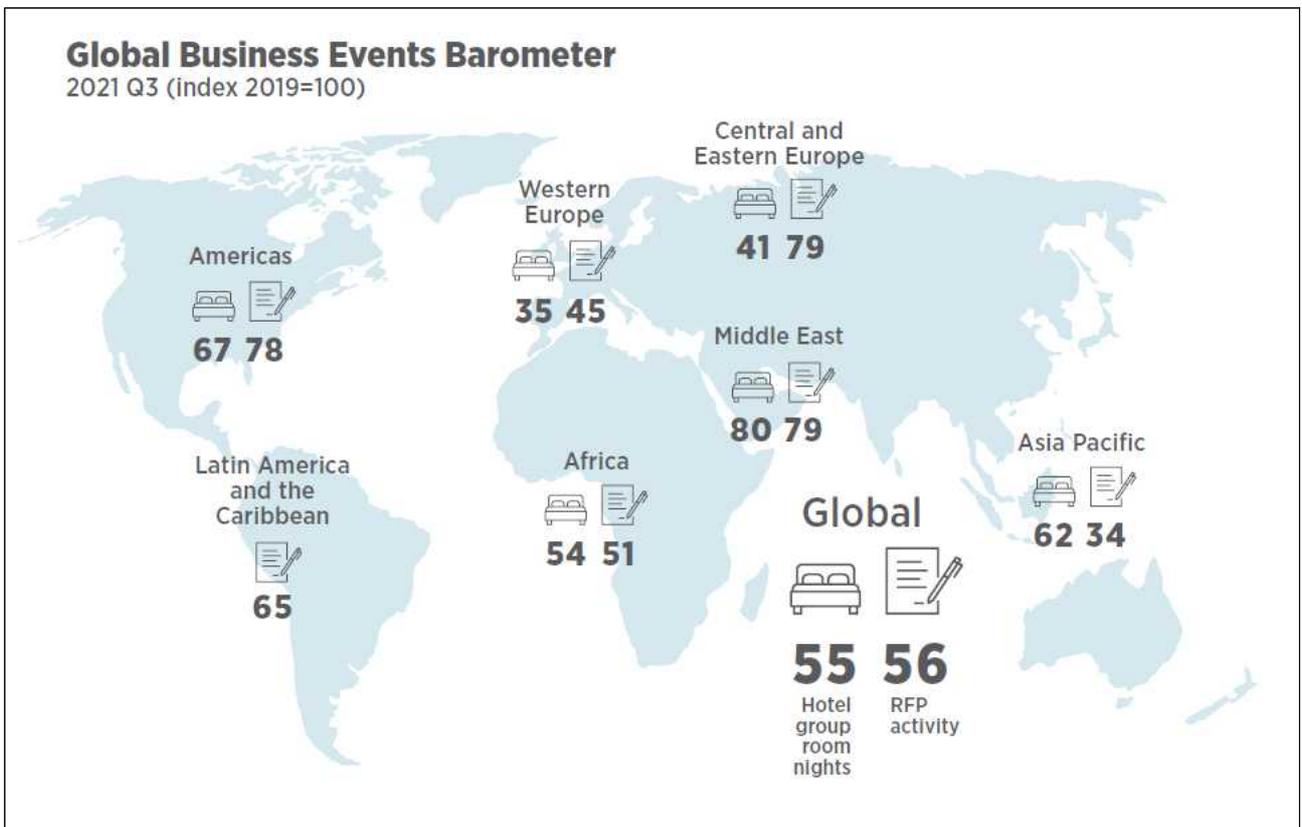


[그림 1] 2019년 대비 2022년의 숙박 수요 규모

### ■ 제안요청 활성화 지수(RFP Activity Levels) 상승

- 미 이벤트산업협의회(EIC, Events Industry Council)의 글로벌 비즈니스 이벤트 바로미터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제안요청 규모는 2019년의 5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한창 교류가 많았던 시기인 2019년까지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두고 대륙별로 비교할 경우 RFP 활성화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중앙·동부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두 지역은 2019년 대비 약 79%의 RFP 활성화 지수를 기록 중이며, 중앙·동부 유럽에 대한 숙박 예약률은 2019년 대비 매우 낮은 41% 수준을 기록한 반면 중동 지역의 경우 숙박 예약률이 2019년 대비 80% 수준을 기록하는 등 비슷한 제안요청 수준을 기록하더라도 지역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RFP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대표적으로 34점을 기록한 아시아·태평양, 45점을 기록한 서유럽, 51점을 기록한 아프리카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Global Business Events Barometer 2021

## 2) 국제회의 기획자 설문조사(Meeting Planners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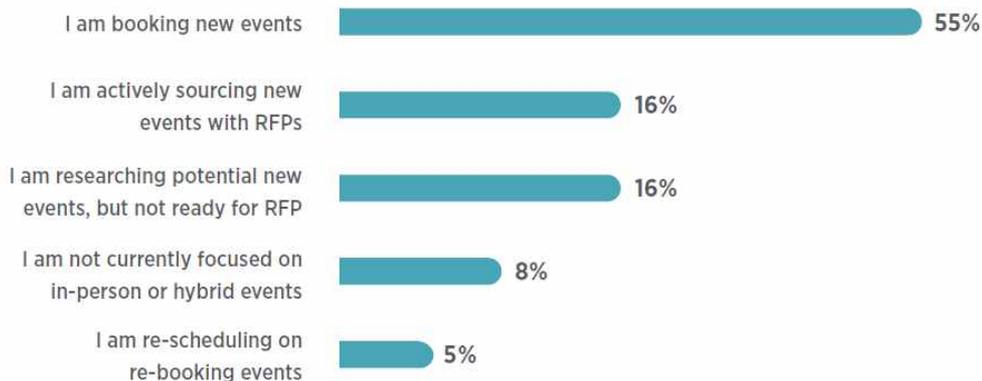
- 세계 최고의 국제행사 전문 솔루션 기업 앙코르 글로벌(Encore Global)은 매 분기마다 국제회의 기획자 및 이벤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업계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며, IACC에서 활용한 해당 국제회의 기획자 설문조사의 경우 2022년 여름 75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 ■ 국제이벤트 업계 재활성화

- 앙코르 글로벌이 매 분기 설문을 진행해온 이래, 2022년 8월 실시한 설문에서 ‘현재 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행사 여건이 만들어져 감에 따라, 당신의 1순위 목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종사자들이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 중이거나 발굴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응답은 55%, ‘RFP를 통해 새로운 이벤트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응답은 16%, ‘개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이벤트를 찾고 있으나 RFP는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응답 역시 16%, ‘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행사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8%를 기록하는 등 새로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궤도에 오른 기업의 비율이 꽤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Figure 2. % of Planners Booking or Sourcing New Events Highest Sinc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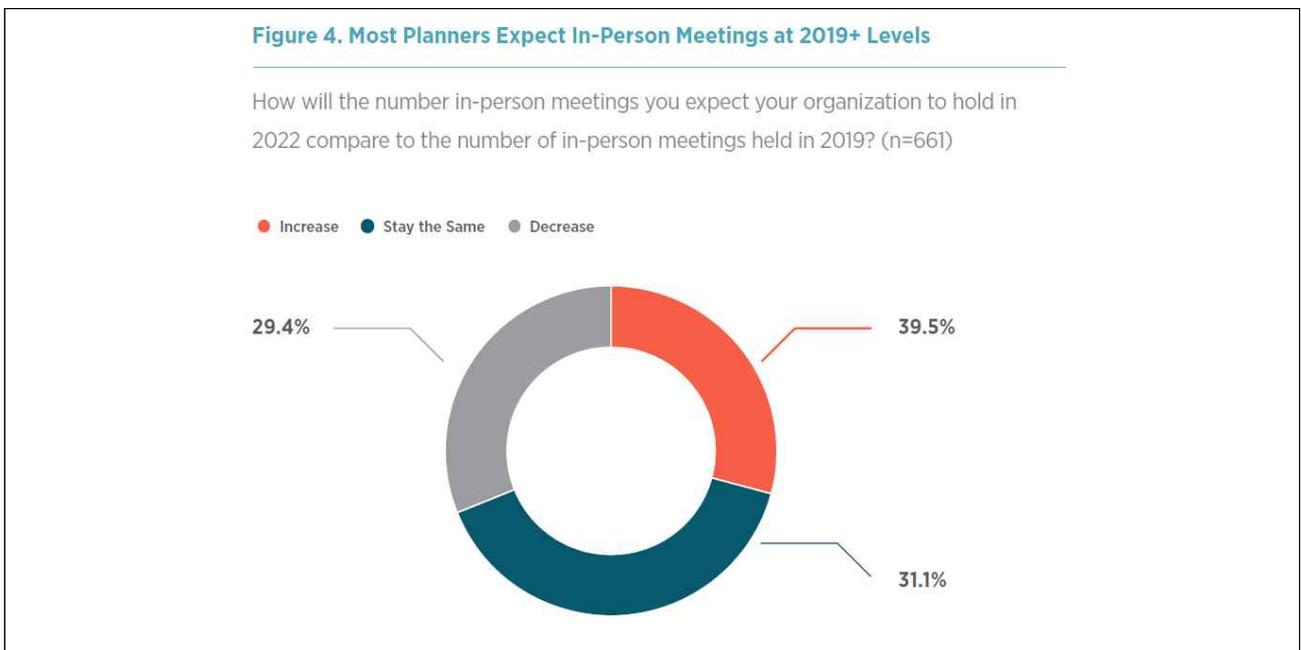
What is your current primary focus as it pertains to in-person or hybrid events?



[그림 3] 대면 · 하이브리드 시대의 국제이벤트 기획자들의 대응현황

### ■ 대면 행사 횟수 증가

- 한편 ‘당신의 조직이 2022년에 진행하는 대면 행사 건수가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39.5%가 ‘2022년에는 2019년보다 더 많은 대면 행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응답
- 그 뒤를 이어 ‘2022년에는 2019년과 비슷한 수의 대면 행사를 운영할 것’이라는 응답이 31.1%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2019년보다 더 적은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9.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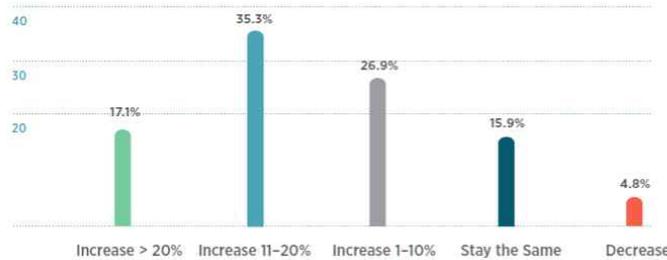
[그림 4] 2019년 대비 2022년 대면 행사 건수에 대한 설문 결과

### ■ 행사 개최 비용 증가 예상

- 한편 국제회의 기획자들에게 ‘같은 규모 및 난이도라고 가정할 때, 2019년에 비해 2022년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자 중 약 80% 가량이 ‘행사 개최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음
- 구체적으로 약 17.1%의 응답자들은 ‘행사 개최 비용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35.3%의 응답자들은 ‘행사 개최 비용이 11~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행사 개최 비용이 1~1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 역시 2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지’는 15.9%, ‘감소’는 4.8%의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음

Figure 6. Event Planners Expect Higher Costs

For a meeting of the same size/complexity, how do you expect the costs in 2022 to compare with the costs in 2019? (n=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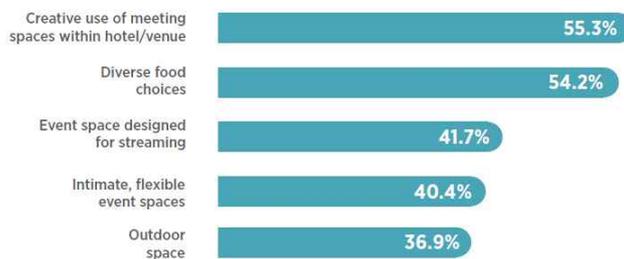
[그림 5] 2019년 대비 2022년 행사 개최 비용 예측

### ■ 호텔 및 메뉴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 한편 국제회의 기획자들은 행사 개최 비용이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히 비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중에는 호텔 및 메뉴가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
- 국제회의 기획자들에게 '다음의 보기들 중 호텔 및 메뉴에서 제공하기를 바라는 이벤트 서비스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호텔 및 메뉴가 보유한 공간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기획자는 55.3%였으며, '다양한 음식 선택지'가 54.2%, '스트리밍(실시간 인터넷 방송) 전용 이벤트공간'이 41.7% 등으로 나타남

Figure 7. It's Not Just Inflation: Planners Expect More from Hotels & Ve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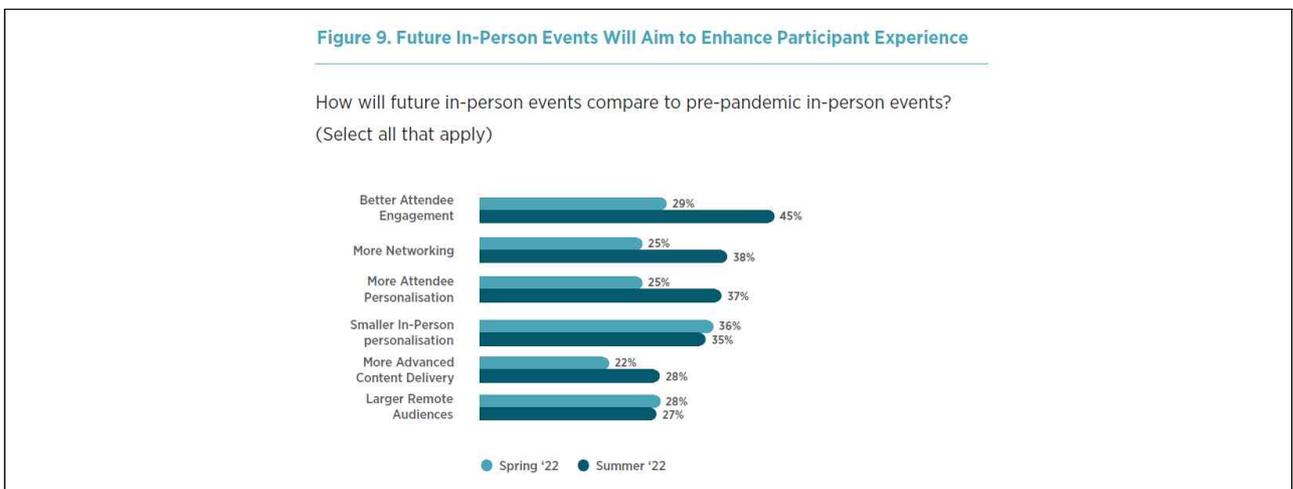
Which of the following event services and features do you expect hotels/venues to offer? (Top 5 Responses) (n=602)



[그림 6] 호텔 및 메뉴의 추가 역할 관련 설문 결과

### ■ 국제이벤트 참석자의 경험

- 마지막으로, 국제회의 기획자들은 ‘팬데믹 이전의 대면 이벤트들과 팬데믹 이후의 대면 이벤트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 것인가? (중복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이 ‘참석자들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가 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우선 ‘참석자들과의 교류 개선’이라는 응답은 45%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더 많은 네트워킹’이라는 응답이 38%, ‘참석자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는 응답이 37%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는데 해당 선택지들은 모두 직전 분기 설문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이번 설문에서 선택율이 급격히 높아진 선택지들임
- 이외에도 ‘대면 시의 사소한 커스터마이징’(35%), ‘개선된 콘텐츠 전달 및 송출’(28%), ‘대규모 원거리 관객’(27%) 등의 선택지에 대한 수요도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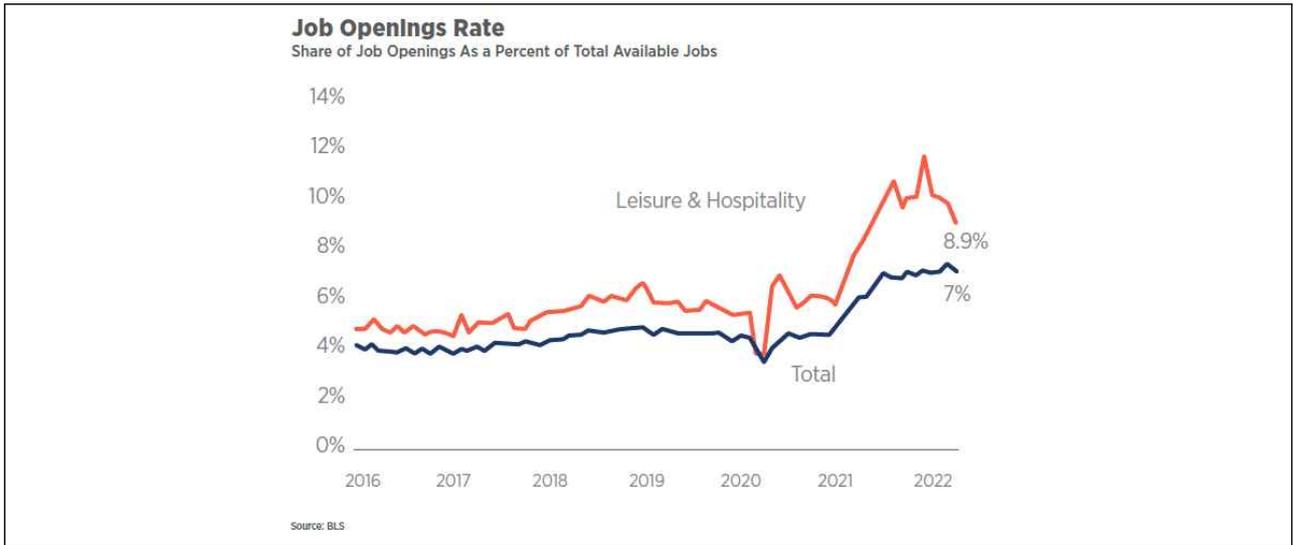
[그림 7] 향후 대면 행사에 대한 참가자 경험 수요

### 3) 업계 고용현황

#### ■ 인력 수급 부족

- 2021년~2022년 대다수의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 및 입국금지 조치 등이 해제된 이후 국가 간 이동 및 여행, MICE 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레저·호스피탈리티 업종에 대한 인력 수급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나,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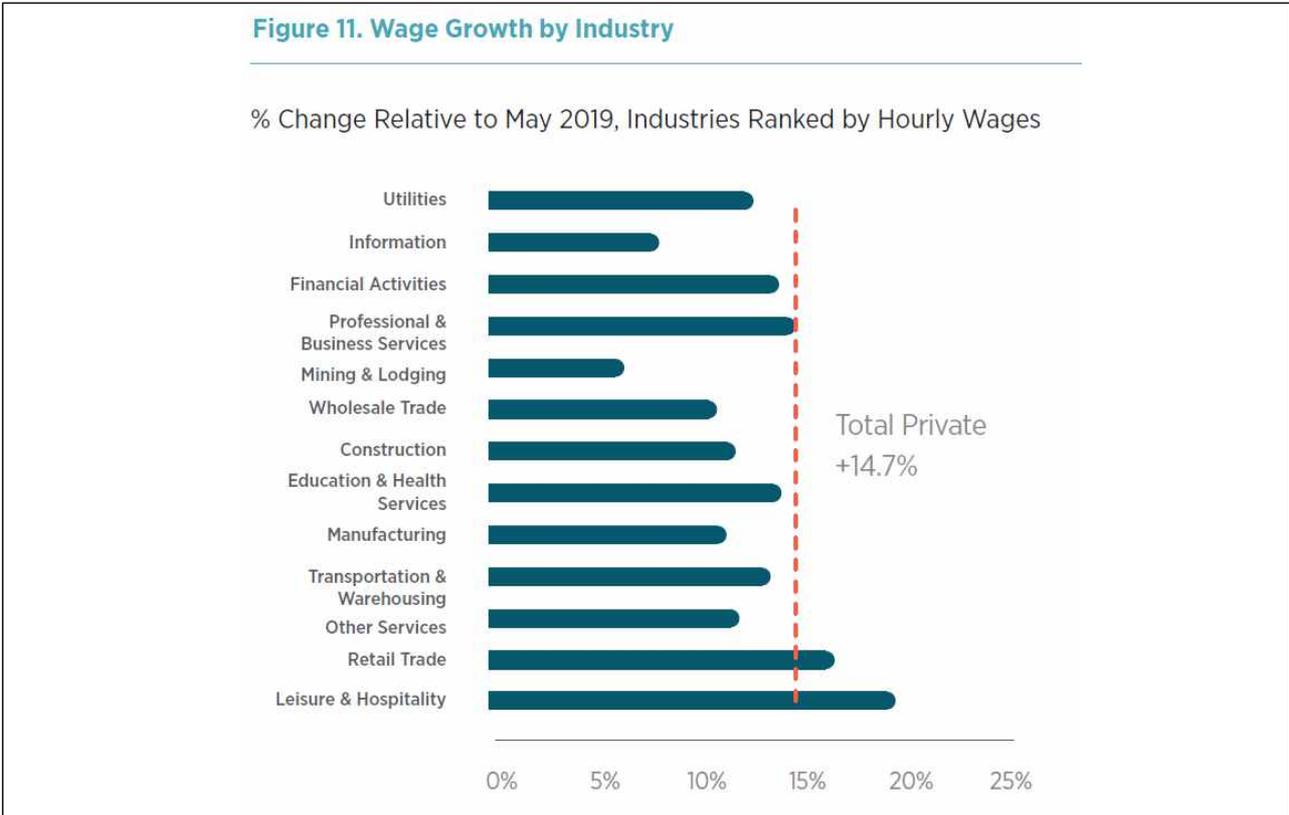
- 특히 미국의 경우 2022년 6월 미국 노동통계부(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집계 상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업종 전체 일자리 중 현재 채용 중인 일자리의 비율이 8.9% 수준을 기록 중인데, 해당 비율은 전체 업종 평균인 7%에 비해 1.9%p 높은 수치로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업종의 구인난이 미국 내 다른 산업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그림 8] 미국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업계 취업률 주이

## ■ 높은 임금 상승 비율

-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IACC 소속 회사들의 2019년 5월 시급과 2022년 5월 시급을 비교하여 임금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레저 및 호스피탈리티 업종의 임금 상승 비율이 IACC 소속 회사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특히 해당 조사에서 임금 상승률이 15% 이상을 기록한 것은 유통업계와 레저·호스피탈리티 업계로 단 두 개 업계에 불과했는데, 이는 레저·호스피탈리티 업계에서 유연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성과급이나 특정 근무시간을 채울 시 지급되는 마일스톤 격려금,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여건을 배려하고 임금을 상승시켰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림 9] 미국 내 산업별 시급 인상 비율

#### 4) 결론

-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IACC는 MICE 산업 공급망에 대한 저해요소 및 원자재·인력 가격 변동, 직업 균형 등으로 인하여 업계 내 사업자들이 해당 기간까지 완속한 회복의 단계에 접어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IACC는 비즈니스 여행 업계 종사자들에게 2022년 한 해 동안 기존의 서비스를 문제 없이 운영하고 금융적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도 바이어들이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예약하는 등에 대한 지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2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 해외시장 동향

## 2. 해외시장 동향

###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 필리핀: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PHIDEX 2022) 개최

- 필리핀관광청,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마닐라 SMX 컨벤션센터에서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Philippine International Dive Expo, PHIDEX 2022)를 개최, 다이빙 업계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수중 사진가, 테크니컬 다이버, 해양환경 보호론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하였음
-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는 전 세계의 다이버들을 환영하기 위한 행사로, 특히 다이빙 업계의 리더들이나 업계 관계자, 전문가 및 정부, 다이빙 애호가 등이 참석하면서 필리핀 다이빙 산업에 대한 메시지와 의견을 공유하고 공통의 방향성을 만들어나가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필리핀 휴양산업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이번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의 주제는 ‘Back into the Blu: One with the Sea’로, 해양 보존 및 보호, 프리다이빙, 수중 사진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음
  - 해양 경제학자인 타라 아브리나(Tara Abrina)는 어부들의 해안 개발에 대한 관점에 대해 전달하였으며, 전문 다이버 차 오캄포(Cha Ocampo)는 수중환경의 취약성과 아름다움, 프리다이빙에 대해 논의함
  - 한편 세계 자연유산 지역인 투바타하 리프(Tubbataha Reefs) 국립공원 관리자인 안젤리크 송코(Angelique Sonco)는 ‘해양 보존 및 보호’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필리핀 바다가 겪은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필리핀의 상어 보호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음
  - 수중 사진작가인 알렉스 머스타드(Alex Mustard)는 사진의 즐거움과 도전을 공유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조직인 DAN(Divers Alert Network)과 PAD(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에서는 다이빙의 안전과 다이빙을 넘어선 조직의 능력에 대해 강연함
- 필리핀관광청, 이번 필리핀 국제 다이빙 엑스포(PHIDEX 2022)를 계기로 필리핀 관광 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향후 필리핀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 ■ 베트남: 8월 8일 빈즈엉 뉴 시티 엑스포(WTC Expo) 개관

- 베트남, 자국 내 첫 번째 국제 무역 센터인 빈즈엉 뉴 시티 엑스포(Binh Duong New City Expo, WTC Expo)를 지난 8월 8일 개관하였음
  - 빈즈엉 뉴 시티 엑스포(WTC Expo)는 국제적인 원스톱 MICE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박람회, 전시회, 행사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며 입지를 넓혀 갈 계획
  - 빈즈엉 뉴 시티 엑스포(WTC Expo)는 베트남 최초로 지어진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omplex)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세계 무역 센터 인근에는 16만 5천㎡의 면적에 현대적 기반 시설을 비롯한 주거 단지 및 상업 건물, 다목적 경기장, 쇼핑몰, 호찌민시와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설치될 예정임
- 특히 빈즈엉 지역의 경우 베트남 남부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제 무역 센터 설치를 통해 더욱 거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전망으로, 베트남이 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음에도 MICE 이벤트를 위한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겪어온 문제들을 해결하고 베트남 MICE 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빈즈엉 뉴 시티 엑스포의 경우 추후 해당 무역 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해외 기획자들에게 행정적 절차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시장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MICE 행사 유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



[그림 10] 빈즈엉 뉴 시티 국제 무역 센터 전경

■ **싱가포르: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2’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

- 싱가포르 법무부 및 파트너 기관들,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 2022’를 대면, 하이브리드, 가상 이벤트 형태로 개최
-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는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 중 하나로, 일련의 활동에 걸쳐 전 세계의 법률가 및 기업 임원,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분야를 대표하는 리더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사회의 수요 파악 및 분쟁조정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진행됨
- 한편 이번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에서는 ‘분쟁 해결’을 주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매년 함께해 온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UNCITRAL Academy’ 및 ‘UNCITRAL Academy Capacity Building Workshop’ 등을 함께 진행하였음
  - UNCITRAL Academy에서는 ‘글로벌 변화 수용과 새로운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법률 및 비즈니스 분야, 공공기관 담당자 등 국제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플랫폼을 구성하였으며, UNCITRAL Academy Conference의 경우 싱가포르 문화부장관 겸 법무부차관인 에드윈 톱(Edwin Tong)과의 대담 및 분쟁 해결 분야 글로벌 전문가 25인의 패널토론 등을 진행하였음
- 또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심포지엄(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ymposium 2022), 환태평양 변호사협회 중재의 날(Inter-Pacific Bar Association Arbitration Day 2022) 등 관련 국제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었으며, 이외에도 싱가포르 해운중재회의소,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 등에서 주관하는 토론 행사 등의 세션이 진행되는 등 국제회의 주간에 걸맞는 다양한 규모의 행사 및 세션 27건이 진행되었음



[그림 11]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아카데미(UNCITRAL Academy) 프로그램 진행 현장

## 나. 미주 지역

### ■ 캐나다: 데스티네이션 인터내셔널(DI), 토론토를 올해의 컨벤션 도시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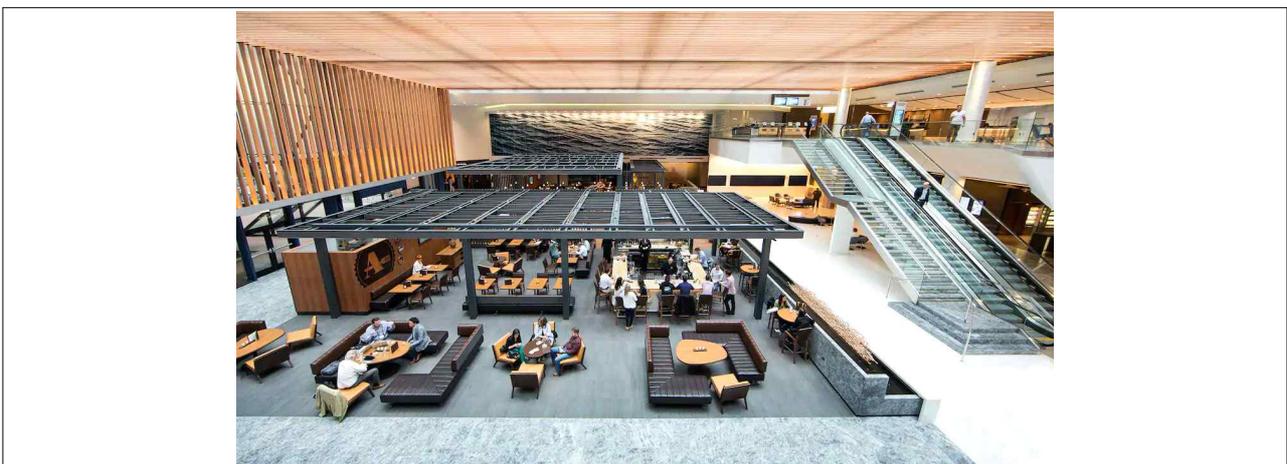
- 데스티네이션 인터내셔널(Destination International, DI),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센터(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MTCC)에서 캐나다의 지역관광 마케팅 추진 조직(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DMO)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토를 올해의 컨벤션 도시로 선정
- 북미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토론토는 최근 뉴욕 및 보스턴, 워싱턴 D.C. 등 미국 내 주요 도시들과 비행기로 9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국제회의 및 이벤트 산업에서 주요 허브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토론토의 관광산업은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5,000억 원) 규모를 달성하고 70,000여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하였음
- 또한 토론토는 약 170여 개의 호텔에서 36,000개의 객실을 제공하고 있어 MICE 행사 관련 참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숙소의 폭이 매우 다양한 데다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기업들 중 25% 이상이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어 기업 참여도가 매우 높고 스타트업 등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특징점들에 근거하여 데스티네이션 인터내셔널은 토론토를 올해의 도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토론토 관광청은 전 세계 목적지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토의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팸투어를 진행하여 역사적인 장소, 현대적인 장소 등을 탐방할 기회를 제공함



[그림 12] 토론토의 대표 유니크베뉴 중 하나인 ‘까사 로마(Casa Loma)’ 전경

■ 미국: 시카고, 2023년 제1회 이벤트 리더스 익스체인지(ELX) 연례총회 유치 성공

- 미국 시카고, 국제회의 및 이벤트 기업들의 경영자들로 이루어진 ‘Event Leaders Exchange (ELX)’의 첫 번째 연례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 2023년 2월 초 시카고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
  - Event Leaders Exchange (ELX) : 2021년 9월 창설된 국제회의·이벤트 업계 전문가 공동체로, 국제회의 업계에서 3,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연매출 300만 파운드(한화 약 48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사업체들로만 이루어지며 아이디어 공유 및 업계 인사이트 도출, 대면 강연 프로그램, 싱크탱크 활동 및 벤치마크·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2023년 예정된 ELX 연례회의에는 맥도날드, 맥킨지, 월마트, 구글, 알리안츠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확정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업들의 비전에 대한 공유, 교육 세션 및 사례분석, 네트워킹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교육 세션의 경우 ‘Ted 스타일’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전문가 또는 강연자가 무대에서 강연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형태의 강연)을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분과별·그룹별 세부 분류를 통해 조직구조 구성, 인적자원관리, 행사 관련 테크놀로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등 강연 주제를 나누어 누구나 기업 현황에 알맞은 강연을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 한편 ELX 측은 해당 행사를 버추얼 및 대면 행사 형태로 기획하고 있으며, 제1회 총회가 잘 마무리될 경우 본격적으로 연례행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그림 13] ELX 연례총회가 진행될 시카고 하얏트리젠시 호텔의 전경

## 다. 구주 지역

### ■ 슬로베니아: 컨벤타, '2022 컨벤타 워크'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8월 24일~25일 개최

- 컨벤타(Conventa),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2022 컨벤타 워크'를 개최
  - 컨벤타(Conventa) : 컨벤타는 '신유럽' 지역(전통적으로 유럽의 중심으로 여겨져 온 독일 및 프랑스 등 서유럽 지역이 아닌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지역)의 컨벤션 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트레이드쇼 기획사로, 2007년부터 해당 지역 내 국제회의 및 컨벤션 산업의 네트워킹을 위해 매년 '컨벤타 워크' 등의 행사를 진행해왔음
- 2022 컨벤타 워크는 동유럽 지역 내 바이어 및 셀러들의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는 컨벤타 국제 트레이드쇼, 국제 이벤트 기획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컨벤타 크로스오버 컨퍼런스, 그리고 지역 내 최고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컨벤타 베스트 이벤트 어워드 등 총 3개 부문의 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형태로 구성되었음
- 컨벤타 국제 트레이드쇼의 경우 호텔, 컨벤션센터, CVB 등 총 92개사가 전시부스를 운영했으며, 전세계 33개국에서 이벤트 기획자 145개사가 참석하여 행사 기간 동안 약 2,500 회의 미팅이 성사되었고, 총 4개국 9개 목적지에 대한 팸투어 일정을 진행하였음
- 한편 컨벤타 크로스오버 컨퍼런스에서는 'Meetings Industry Unplugged'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 국제회의 산업의 미래와 혁신, 환경과 책임, 핵심사례 등을 12개국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공유하였으며, 컨벤타 베스트 이벤트 어워드 시상식에서는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OneTonneIsland'가 B2B 부문 최우수상을,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소개한 'Velo-City 2022'가 B2C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



[그림 14] 2022 컨벤타 워크 행사 현장



# 3

2022년 MICE 산업 동향 보고서

## 국내시장 동향

### 3. 국내시장 동향

#### ■ 서울: 통일부, 8월 30일~9월 1일 3일간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 개최

- 통일부, 8월 30일 및 9월 1일 3일간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을 개최, 국내외 협력기관 27여 곳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
  -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은 2010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매년 개최되어온 행사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해 1.5트랙 형태로 진행되며 매년 다수의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다자 국제포럼의 형태로 운영됨
- 이번 회의는 통일 비전,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번영, 비핵화와 북한 변화 전망, 정책연속성 확보 등을 주제로 삼았으며, 행사 첫날인 8월 30일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호르스트 텔치 전 서독 총리 외교안보보좌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으며 비정부기구 및 연구기관 주관으로 전직 장관 및 정치인, 학계 및 언론 그룹 등이 참석하는 현인 대화를 진행, 북한 비핵화 해법, 최근 북한의 평가 및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의 의미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음
- 한편 행사 둘째 날인 8월 31일에는 미래학자 후안 엔리케스가 특별강연을 진행하였고, 미첼 바첼렛 UN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인권 문제 및 국제인권 체제 관련 기조연설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남북 그린데탕트, 자연·재난 공동대응, 한반도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남북 공동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 마지막 날인 9월 1일의 경우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환경, 경제, 농업 관련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었음
- 통일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정립, 통일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 형성 등 다방면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



[그림 15]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막식 현장

■ 인천: 항공산업 컨퍼런스 및 수출상담회 8월 24일~25일 양일간 개최

- 인천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8월 24일 및 25일 양일간 웨리톤 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항공산업 컨퍼런스 및 수출상담회’ 행사 진행
- 해당 행사는 인천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항공분야 상담회로, 글로벌 선진 항공우주 기업과의 컨퍼런스를 통해 최신 항공사업을 소개하고 수출상담, 질충교역, 정보공유 등 산업협력체계 강화에 필요한 활동 다수를 진행, 인천 항공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
-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에어버스(유럽, 항공우주제조), 사프란(프랑스, 항공엔진개발), 벨 헬리콥터(미국, 항공우주제조), 노스롭 그룹만(미국, 항공·방위제조), 다쏘시스템(프랑스, 항공기제조), GE 에비에이션(미국, 항공엔진제조), 스카이포트(영국, UAM) 등 항공우주산업에서 세계적인 입지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였음
- 또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에어버스를 비롯해 총 7개 기업이 국내 항공전문기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및 인천 소재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다윈프릭션 등 국내 47개 기업들과 1대1 수출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공사업 분야 수주·마케팅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글로벌 항공기업과 국내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부품제작 수출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인천시는 그간 항공산업 관련 판로 개척 및 장비시설 유치에 힘써온 바 있는데, 항공기업 육성과 글로벌 세계시장 진출 등을 위해 2017년부터 런던 관버러, 프랑스 파리에어쇼 등에 참가하여 인천 항공기업 공동전시관 운영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IAI사의 화물기 개조사업, 미국 아틀라스사의 항공기 중정비센터, 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 등을 인천에 유치하여 2025년 사업을 계획할 예정임



[그림 16] 인천 항공산업컨퍼런스 및 수출상담회 현장

## ■ 경기도: 고양시, 8월 23일부터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개최

- 경기도 고양시-고양컨벤션뷰로, MICE 산업을 육성하고 MICE 도시 이미지 형성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2022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를 진행
- 해당 행사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4일 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 볼룸 및 회의실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부대행사를 함께 진행
  - 부대행사의 중심 주제는 '문화, 관광 그리고 도시'로, 행사 1일 차에는 ICCA와 한국 MICE협회가 공동개최하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이벤트 유스 챌린지' 공모 결승전이 개최되었으며, 2일 차에는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과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본식 개막식을 진행하였음
  - 한편 3-4일 차에는 글로벌 MICE 도시 지속가능성 협의체인 GDSM(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Movement) 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GDS 아시아 태평양 포럼'이 개최되었고, 마지막으로 4일 차에는 행주산성 방문, 유니크메뉴인 현대모터스튜디오 방문 등 인근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한편 다양한 부대행사 중 2일차 프로그램 및 4일차 프로그램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석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었음
-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135명을 포함해 총 600여 명의 국내외 참가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하였으며, 일본정부관광국, 싱가포르관광청, 태국컨벤션뷰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마케팅 전담조직(DMO) 직원 50여 명이 참석하였음
- 고양시,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를 중심으로 고양시를 국내 MICE 산업 핵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하며 킨텍스 제3전시장 및 CJ 라이브시티 조성을 통한 인프라 강화 이후 세계적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



[그림 17] 2022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포스터

■ 강원도: 강원도관광재단, 8월 26일 '취업 토크쇼: 강원 MICE 다이브' 개최

- 강원도관광재단, 8월 26일 KT&G 상상마당에서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 및 서포터즈 역량 강화와 함께 하반기 취업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취업 토크쇼:강원 MICE 다이브'를 개최
  - 서포터즈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씩으로 분류되는데, 상반기에는 MICE 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취업에 주안점을 두고 멘토링 등을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
-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MICE 주요 분야 1~2년차 직원들이 패널로 참여, 각자의 회사 생활과 입사 노하우 등의 내용을 취업 관련 서포터즈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및 소노호텔앤리조트, 이즈피엠피, 플라이강원 등의 기관 및 기업이 멘토로 참석하였음
- 강원도관광재단, MICE 서포터즈는 미래 강원 MICE 산업의 원동력이 될 인재들로 해당하는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에 자리잡도록 이끄는 것은 상당히 뜻깊은 자리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강원도 MICE 산업에 대한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



[그림 18] 강원 MICE 미래인재 육성 및 서포터즈 '취업 토크쇼:강원 MICE 다이브' 현장

## ■ 부산 'K-메타버스 엑스포 부산 2022',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

- 부산시, '글로벌 메타버스 허브 부산'을 테마로 'K-메타버스 엑스포 부산 2022'를 개최
- 지디넷코리아와 에코미스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미래 주요 산업으로 급부상한 메타버스를 토대로 전시회, 상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 비즈니스모델(BM)과 산업 전망 등을 제시하였음
- 'K-메타버스 엑스포 부산'에는 전시, 상담 기업 등 92개사가 참여하여 130개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약 4,350명이 전시장에 방문, 메타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고, 메타버스 전시와 온라인 세미나에는 약 3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번 엑스포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디바이스, 인공지능(AI) 휴먼, 게임, 교육 등 분야 제품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였음
  - 뿐만 아니라 전시회에서는 교보증권, 오썬피아, 메버, 케이쓰리아이, 클래스VR, 메타브릭, 인그리드, 스텔시, 리하이, 아바엔터테인먼트, 나인커뮤니케이션, 한국메타버스미디어협회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 및 플랫폼들의 기술 시현이 이루어짐
-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CT 기업 디지털 통합 전시관(ICTWOW)'에 입주한 메타버스 업계 중소기업 33곳이 미국, 캐나다, 일본, 아세안 국가 등 22개사의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매칭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으며, 총 100건의 화상상담, 상담금액 1,730만 달러(한화 약 225억 원), 계약추진액 647만 달러(한화 약 85억 원)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림 19] '2022 K-메타버스 엑스포 부산' 현장

## ■ 대전: 대전관광공사, 8월 26일 '2022 대전 MICE 네트워킹 데이' 개최

- 대전시-대전관광공사, 8월 26일 대전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대전 e-스포츠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과학 MICE 도시 대전'의 도시브랜드 강화 및 국제회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2 대전 MICE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함
  - 1부에서는 대전·서울에 소재한 주요 학·협회 관계자와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원들을 초청하여 대전의 MICE 유치·개최지원시스템과 MICE 인프라를 소개하는 '대전 MICE 초청 설명회'를 진행하였음
  - 2부에서는 대전의 MICE산업 경쟁력 육성·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의체인 '대전·충청 MICE 얼라이언스' 연례총회를 진행하였음
- 특히 2부에 열린 연례총회에서는 대전·충청 지역 MICE 얼라이언스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6월 기존 회원사 정보의 현행화 및 신규회원사 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62개 회원사를 새로 위촉함
  - 대전관광공사 MICE사업단, '대전관광공사에서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 불릴 만큼 경제적 파급력이 큰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 8,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개관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양질의 크고 작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MICE 도시 대전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



[그림 20] '2022 대전 MICE Networking Day' 현장